

보도시점 2025. 12. 9.(화) 11:00
12. 10.(수) 조간

배포 2025. 12. 9.(화) 09:00

국산 구제역 백신 '차세대 플랫폼'으로 상업화 눈앞에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 구제역 백신 연구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성료
- 기존 단순 불활화 백신에서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등 차세대 백신 기술로 확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12월 5일(금)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25년 구제역 백신 연구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고,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 기술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유전자재조합, 엠알엔에이(mRNA) 등 다양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내 구제역 백신 연구개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 다변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신 제조사, 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등 9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학술 토론회는 기조 강연과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과 미래 전략', '산업체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조 강연에서는 전북대학교 탁동섭 교수가 엠알엔에이(mRNA) 백신 등을 포함한 최신 백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며 동물 백신 분야에서도 플랫폼 다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 국내외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백신평가와 대응전략, ▲ 국내외 백신주(strain)와 면역증강제(adjuvant) 개발 동향 및 전망, ▲ 구제역 백신항원 정제와 생산 기술을 발표하며 산업체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제역 백신 개발에서 여러 백신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발표가 이어졌다. (주)에프브이씨(FVC), (주)옵티팜(Optipham), (주)나노백스(Nanovax), (주)씨티씨백(CTCVac)이 각각 ▲ 불활화 구제역 백신 상업화 전략, ▲ 곤충세포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백신 개발, ▲ 대장균 유래 바이러스 유사입자(Virus Like Particle; VLP)를 이용한 백신 개발, ▲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구제역 백신의 수출전략과 대외협력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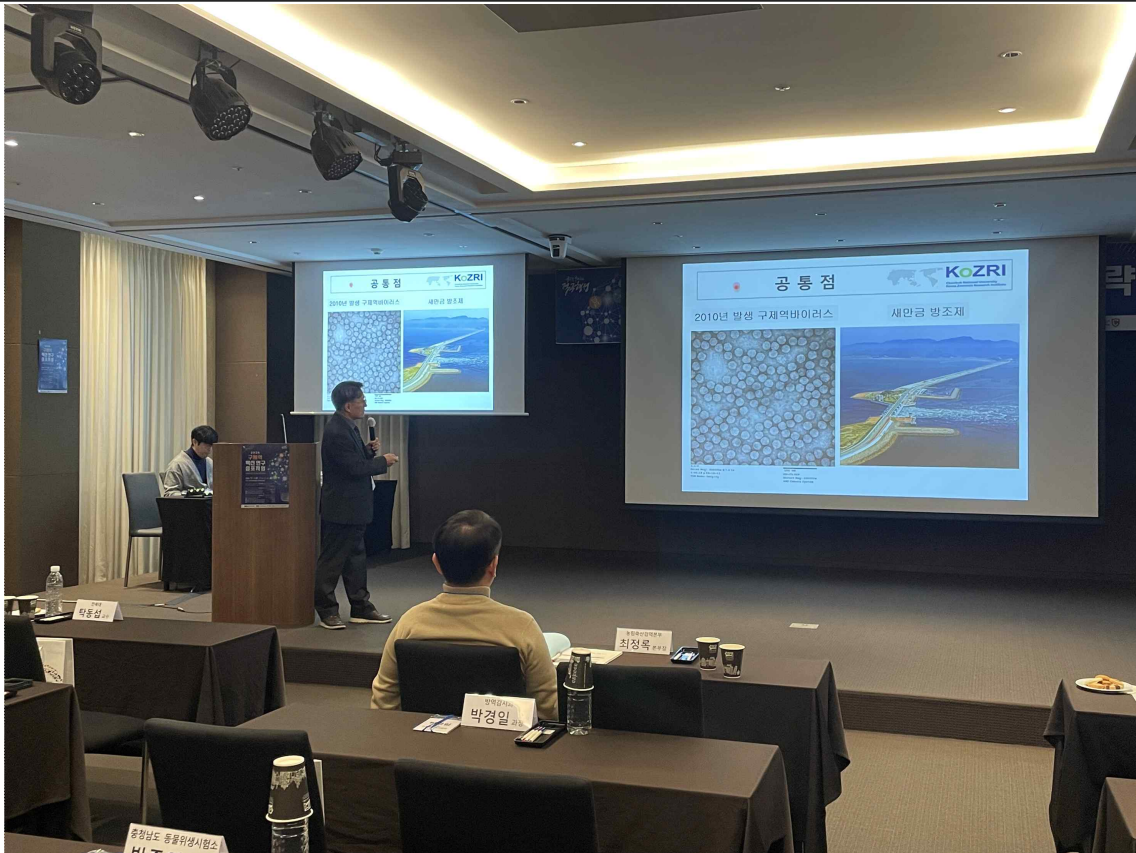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해 ①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벗어나 차세대 플랫폼으로 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②일부 기술이 이미 상업화 단계에 근접하고 있고, ③공동연구과제 수행, 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민간 개방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평가까지 연계된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국내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의견을 모았다.

검역본부는 특히 유전자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이 기존 불활화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산 동물 백신의 공급 안정성과 수출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최근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백신 경쟁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역 백신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산 동물 백신의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체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5년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종현 (054-912-0902)
		담당자	연구관	고영준 (054-912-0908)



심포지엄 진행



단체 기념사진